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도하 밤하늘 '우리의 소원' 울려퍼져

북한 축구응원단 1천명 기립박수

○… 카타르 도하 밤 하늘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울려퍼졌다.

10일(이하 한국시간) 28년만에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재회한 남북 축구팀이 열전을 마치자 북한 응원단 1천여명과 한국 응원단 300여명은 나란히 기립박수를 보내며 통일을 합창했다.

점점 세(勢)를 불린 북한 남성 응원단은 이날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 남북대결이 펼쳐진 도하 시내 알 라얀 경기장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지난 7일 북한-일본전부터 급격히 숫자를 늘린 북한 응원단은 1천 명에 육박했고 1978년 방콕대회 결승 이후 오랜만에 이뤄진 남북대결을 맞아 질서정연한 응원을 벌였다.

북한 응원단은 후반 초반 세 골째를 내줘 패색이 짙어졌지만 대열을 흐트리지 않고 '용기를 내라'는 구호로 북한의 만회골을 기원했다.

아쉽게 승부를 마감한 북한 응원단은 한국이 북한을 3-0으로 북한을 꺾고 4강행을 확정한 뒤 인사를 하기 위해 본부석 반대편으로 향하자 모두 기립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다. 한국 응원단도 끝까지 투지를 잃지 않고 분전한 북한대표팀에 갈채를 보냈다.

10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라얀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한국과 북한의 8강 경기에서 한국과 북한의 응원단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함께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金 목표 60개로 하향조정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중국 대륙의 거센 '황사폭풍'이 휘몰아치면서 한국의 메달레이스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대회 8일째가 경과한 9일(한국시간)까지 금 27, 은 33, 동메달 47개에 그쳐 국가별 메달 종합순위에서 중국(금103,은59,동30)과 일본(금33,은41,동47)에 이어 3위에 머물고 있다. 당초 태릉선수촌이 계산했던 메달레이스보다 금메달이 10개 이상 모자라는 부진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최종 목표를 금메달 73개에서 60개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한국이 예상 밖으로 중반까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시아의 공룡'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안게임 메달 싹쓸이에 더욱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양궁과 골프, 남자하키, 핸드볼 등 강세종목들이 대회 후반에 몰려 있어 최소한 금메달 60개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故 김형칠선수 서울에 빈소

○…2006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부문에 출전했다 불의의 낙마 사고로 숨진 고(故) 김형칠 선수의 빈소가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10일 오후 6시35분 김형칠 선수의 유해가 인천공항을 통해 운구 됨에 따라 태릉선수촌 내 선수회관에 설치해 운영해 왔던 임시 분향소를 이날 낮 2시에 폐쇄하고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5호실에 빈소(전화 02-3010-2295)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오는 14일 대한올림픽위원회장으로 치러진다.

박태환 4,450만원 포상금

○…2006 도하아시안게임 경영 3관왕에 오른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이 4천4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와 400m, 1,500m에서 금메달 3개, 자유형 100m 은메달,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 3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따냈다. 또 자유형 200m, 1,500m에서는 아시아신기록을 세웠고 자유형 400m를 제외한 나머지 출전 종목에서는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메달에 따른 포상금을 보면 박태환은 금 3개에 3천만원, 은 1개에 200만원을 받는다. 동메달의 경우 75만원(25만원×3)을 받게 된다. 신기록에서는 아시아신기록 2개에 500만원씩 1천만원을 받게 되고 한국 신기록의 경우 개인 종목(자유형 100m)에서 100만원, 나머지 계영 3종목에서 75만원(25만원×3)을 지급받는다.

서재응·정영일, 모교 화정초서 야구 지도

"와, 서재응 선배다, 저기 키 큰 형이 정영일이래"

10일 광주 화정초교 운동장에서 열린 '화정야구 동문회' 모임에서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과 정영일(18·광주진흥고·LA에인절스)을 비롯한 정원(24·KIA) 등 화정초교 출신 야구부 선배들이 지도 교실을 열고, 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정초교는 올해로 26회 야구부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서재응은 9회, 정원은 14회, 정영일은 20회다.

먼저 선배 서재응이 군기를 잡았다.

"이 녀석들,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려면 우선 옷부터 단정하게 입어야지."

일일이 후배들의 야구복 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모습에서 넘쳐나는 후배 사랑이 느껴졌다.

옆에선 정원과 정영일이 진지한 표정으로 어린 후배들의 투구폼을 교정해 주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화정야구 동문회 모임은 화정초교 출신 야구 스타들과 어린 후배들을 연결시켜 꿈과 포부를 심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연중 행사다.

내년 시즌 탬파베이와 계약기간 1년, 연봉 120만달러에 계약한 서재응은 "후배들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며 "올 시즌은 3승 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시즌은 팀 선발로 확정된 만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배 정영일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훌륭한 투수"라고 극찬했다.

화정초등학교 야구부 출신인 서재응과 정영일, 정원(오른쪽부터)이 10일 모교를 방문, 후배들에게 야구 지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에 정영일도 "서재응 선배가 미국에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열심히 노력해 모교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서재응은 당분간 광주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7일 미국으로 돌아가 플로리다 탬파에서 몸 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영일은 내년 2월 고교 졸업과 동시에 에인절스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다.

/박진표기자 lucky@

정지호 우승…1부투어 뛴다

함평다이너스티CC서 큐스쿨 최종전

정지호가 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2007 Q-SCHOOL 최종전(3차전)'에서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해 우승상금 2천만원과 내년 1부투어 출전자격을 얻었다.

정지호는 지난 8일 4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2007Q-SCHOOL' 최종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 한민규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민규가 4라운드 합계 9언더파로 2위, 이성두가 8언더파로 3위를 기록했고, 남기협이 4위, 주흥철이 5위 등 109명의 출전자 중 45명이 내년 1부투어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한편 이번대회는 '2007 Q-SCHOOL' 2차전을 통과한 총 340명이 지난달 27~12월 2일까지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6일간 예선전을 치러 109명을 선발한 후 지난 5~8일까지 4일간 본선을 치러 2007년 1부투어 출전자 45명을 선발했다. /최재호기자 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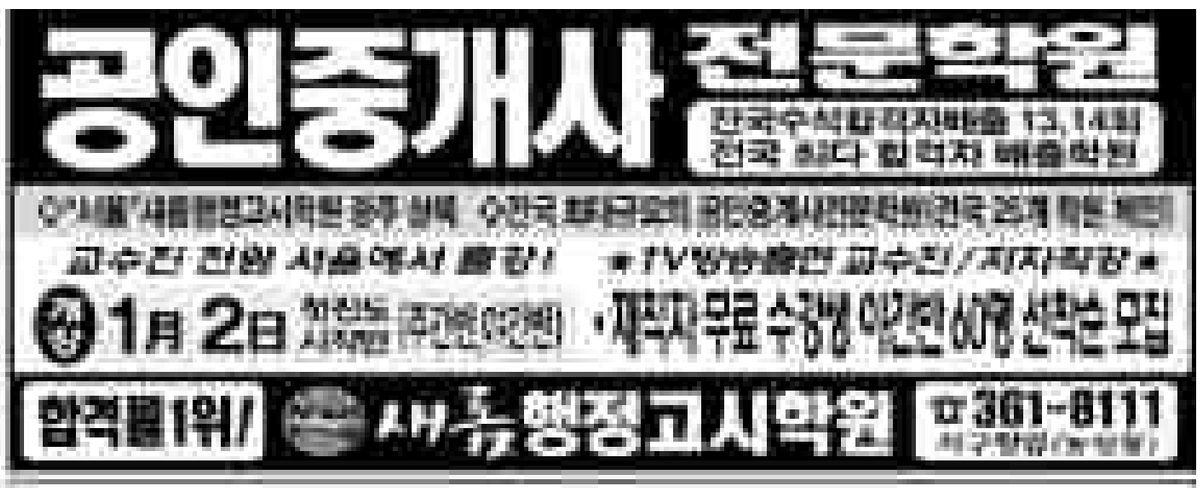
이병규 주니치 입단

올해 한국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였던 이병규(32·전 LG 트윈스)가 마침내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 입단했다.

이병규의 계약 대리인인 전승환씨는 10일 이병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비지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주니치와 입단 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병규와 주니치는 각종 옵션과 세부 내용을 포함한 다년 계약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계약 조건과 기간은 양측 합의하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들은 앞서 이병규가 2년 간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4억엔(한화 32억원)에 주니치와 계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병규가 주니치에 입단함에 따라 국보급 투수로 이름을 날렸던 선동열 삼성 감독과 '삼손' 이상훈(은퇴), '야구천재' 이종범(KIA)에 이어 한국인 선수로는 네 번째 '주니치 맨'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